

Vol. 236

2021

12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

박해와 선교현장
알제리 (Algeria)

현장스토리
베네수엘라 교도소에 올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COVID19, WITH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현필 목사 (한국오픈도어 공동대표)

인류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세계 구석구석을 코로나 19의 암울한 소식들로 가득 채웠던 만 2년 간의 시간, 2021년 12월도 역사 속으로 도도히 흘러 가고 있다. 급속한 백신개발과 함께 신속한 접종을 통해 국가적 집단면역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라들마다 앞다퉈 전력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면역의 꿈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민 백신 접종 70% 80%를 완료했지만 코로나는 끊임없이 재확산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기처럼 위드(With) 코로나 19 시대로 가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방역당국도 방역 일선의 의료진들도 이 문제를 완전히 불식시킬 묘안은 없어 보인다. 당분간 우리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한 현실가운데 놓여 있음이 틀림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목적이 “선행을 낳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딤후 3:16-16). 성경의 주요 주제인 구속 자체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받은 자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하다(엡2:8-10).

그렇다면, 기독교적 “선행(선한 일)”의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준은 무엇인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교도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선행”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선행

을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된다. 최근 한국의 여성 사업가 한 분이 카이스트(KAIST)에 평생 모은 766억 전재산을 과학기술 연구기금으로 기부한 일이 있었다. 그분의 신앙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이웃에게 친절함을 보인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은 이런 보통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불신자들이 종종사회의 진보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식의 기여를 “시민적 의”라고 부르는 데, 이것은 불신자들의 죄를 제어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시민적 의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세가지 특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1)그 행위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2)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도 않고 또한 (3)올바른 목적인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기독교적 선행이 아니다. 그렇다고 카이스트가 아닌 교회나 오픈도어 선교에 현금으로 드렸어야 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선행은 (1)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마음과 (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3) 올바른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필수적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기독교적 선행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오픈도어는 전 세계에 신앙의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선행을 하고 있다.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2021년 현재 기독교 신앙의 이유로 전 세계 박해 인구는 3억 4천만명이 넘는다. 전년도 대비 3천만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박해지수가 가장 높은 등급의 국가 수

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첫째, 실상 가장 효과적인 도움의 방식은 역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공간적, 문화적, 시간적, 감정적 한계를 뛰어 넘어 박해 현장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안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위로 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성령께서 그들과 일치된 마음을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둘째, 또 다른 현실적 최선의 방법은 나의 삶의 일부분을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고난 받는 이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고아와 과부와 재(이웃들)을 위하여 추수할 곡식의 일부분을 남겨두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나의 소득의 일부분을 박해 받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하여 매일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나의 마음이 어느새 그들에게 향하게 된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박해의 현장에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으로부터 분리과 소외를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 분리의 차원을 넘어 생존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족은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오픈도어가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오픈도어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희망의 선물들을 위해 지정한 후원금이 그대로 현장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지정현금의 90%를 국제 오픈도어(ODI)로 그대로 송금하고 있고, 나머지 10%도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 선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이사회비와 교회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많은 한국의 믿음의 지체들이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함께 시선을 두고 기도와 물질로 오픈도어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
- 08 박해와 선교현장 - 알제리
- 14 사역보고 - 아이티, 범죄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 선교사들
- 16 심화현장 - 중앙아프리카, 끊임없는 혼란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 18 현장스토리 - 베네수엘라 교도소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
- 20 박해현장에서 전해 온 크리스마스 이야기
- 22 희망의선물 2021 캠페인
- 23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2021년 12월호 | 통권 236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옥, 김혜정,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10)

- 교화소에서 겨울나기, 그리고 만남 -

마리아 자매

교화소에서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점심을 하고 세면을 했다. 아침 식사를 먹고 밖에 일하러 나갔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더운 여름에도 나가서 일했다. 아마 남한이었으면 그런 타는 듯한 날에는 쉬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썩소리 못하는 죄인이었다.

죄수들이 이동할 때는 정규부대처럼 정확하게 대열을 맞추어야 했다. 팔도 다같이 각도를 맞추어서 흔들었다. 그 때는 내가 그나마 젊은 축에 속해서 웬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0대부터 70대 여자들은 일을 할 때 너무 고되 보였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불쌍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그나마 수월했다는 마음이 들었다. 별 게 참 다행이고 감사했다.



겨우내 언 뚱은 무더기로 쌓아 놓았다가 봄에 밭일을 할 때 사용하였다. 밭에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서 땅에 고랑을 내었다. 남쪽에서는 기계로 똑딱똑딱 해결할 일을 여기서는 인력으로 해 내었다. 봄에는 녹은 뚱을 손으로 집어서 우묵 파인 고랑에 놓아야 했다. 차마 맨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감사하게도 예전에 집결소에서 반장할 때부터 알았던 분을 여기서 만나서 장갑을 얻었다. 남편이 면회 때 준 장갑도 쓸

쓸하게 활용되었다. 옆에 별을 단 군인과 검사하는 간수들의 통제 속에 밖에서라면 차마 하지 못할 소스라치게 더러운 일이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점심을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필수였다. 교화소가 산악지대에 있었고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산물은 차갑고도 맸었다. 모두 정렬하고 있다가 “들어가!”라는 한 마디에 일제히 냇가로 뛰어가서 씻었다. 불과 2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모여!”라는 소리가 들리면 또 다시 일제히 뛰어가서 정렬하였다. 밭일을 할 때는 땅을 계속 파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먼지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씻을 시간을 그렇게 안 줬다.



〈북한에서 판매되는 여성 위생용품〉

하루는 생리를 하였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잘 씻지 못하는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청결을 관리하기란 불가능했으나 옆친 데

똥친 적이였다. 일회용 생리대는 당연히 꿈도 꿀 수 없고 가재천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나 또한 매달 돌아오는 주기마다 가재천으로 해결했다. 가재천을 세탁하여 침실에서 말리는 것까지는 허용되었으나 막상 씻는 것이 문제였다. 매일 일과 전후에 밭 옆에 냇가에서 씻도록 허용되었으나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 손발은 고사하고 가재천을 물에 담갔다가 짜내는 순간 시간이 끝났다. 어느 날은 냇가에서 씻으면서 비닐봉지에 가재천

을 짹짹 집어넣고 본 대열로 합류하는 척을 하면서 동시에 빠져나왔다. 사실 대열을 이탈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때는 어디서 그런 담력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천을 마저 빨고 조심스레 감방 건물로 들어왔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감방이 죽나열되어 있다. 이상하리 만치 다행스럽게도 다른 방 문은 다 잠겨 있었는데 우리 감방 문만 열려 있었다. 살금살금 걸어 들어가는데 복도에서 감방장에게 걸렸다. 감방장은 간수가 아니라 죄수 중에 따로 뽑힌 인원이다. 내가 사정사정하면서 ‘생리기저귀를 빨고 왔는데 금방 사용할 게 없어서 들어왔다. 제발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니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 주었다. 얼른 방에 들어가서 뒤처리하고 뛰어나왔다.

청결 문제와 함께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도 항상 관건이었다. 항상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에 뱃가죽이 등에 붙은 기분을 달고 살았다. 봄에 감자를 심으려고 고랑을 파내다 보면 작년에 미처 수확하지 못한 작은 감자알들이 간혹 있었다. 몇 개월 새 얼고 녹고를 반복하며 그 빛깔이 감자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해진 상태였지만 그것마저 우리에게 보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대어섯 알을 횡재했다고 좋아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노다지 땀이라고 부러워했다.

우리는 커다란 가방으로 겨울에 언 뚱을 운반하곤 했다. 우리는 가방이 비어 있을 때에는 그 속에 횡재한 감자를 넣어 다녔다. 그 큰 가방 말고도 개인적으로 장갑과 같은 필요 물품을 넣고 다니는 작은 천 가방이 있었는데, 그 주머니도 참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새싹이나 썩도 자취를 감춘 봄에는 상대적으로 몸 검신이 간소화되었는데, 그 때 우리는 그 노다지 감자알을 가방에 숨겨서 감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곤 했다.

우리 감방 뒤쪽 창문으로 연결된 다른 방은 공구관리공들의 창고였다. 공구를 수리해야 하므로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조장에게 보고하면 조장이 반장에게 보고하여 시간을 보고 창고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천 주머니에 감자를 모아 넣고 이리저리 뭉개서 가지고 있다가 관리공이 창고에 가 있을 동안 감자 주머니를 짹짹 창문 밖으로 던져주면서 익혀 달라고 했다. 그러면 공구관리공들이 뜨거운 물에 감자를 익혀주었다. 껍데기도 벗기지 않은 생 감자에 땅에서 오래 묵은 녀석이다 보니 색깔이 예쁘지도 않고 감자보다 흙과 돌이 더 많이 씹혔지만 감자떡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 너무 배고파서 그 감자떡 맛이 꿀맛처럼 느껴졌다.

여름이 되면 교화소 근처에 머루가 참 많이도 피었다. 머루와 다래 잎사귀를 보아 두었다가 대열을 정비할 때 짹짹 따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독풀만 아니면 무엇이든 먹을 준비가 되어있었다. 식사할 때 밥을 한 숟갈씩 그 머루 잎사귀에 싸 먹었다. 원래 머루 잎사귀는 식품이나 야채가 아니지만 워낙 아무것도 없던 환경에 그것이라도 먹는 것이 참 기다려졌다. 대열을 정비하면서 근처에 잎사귀 하나라도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하나라도 걸리면 눈이 휘둥그레졌다. 식사시간에 비닐봉투에 밥과 함께 풀을 넣고 계속 주무르고 이기면 풀 떡이 되었다. 그것도 별미라니 맛있게 먹었다. 그 풀과 감자도 방 검사에 걸려서 다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못 먹는 풀과 상태 나쁜 감자를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다.

여름은 감자알이 단추 크기만큼부터 시작해서 탁구공만 하게 커지는 계절이다. 아무래도 비가 자주 오는 시기이기에 비를 맞고 일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억울했지만 땅에 손을 넣어 훑어 얼른 애기감자를 꺼내어 먹는 요령이 있다면 그 재미가 쏠쏠하였다. 이때만큼은 시골 출신의 죄수들이 참 부러웠다. 시골내기들은 곧잘 감자를 집어 내는데 도시에서 지내며 농사는 지어본 적도 없는 나는 감자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친한 시골 출신의 죄수들은 자기 솜씨를 자랑하며 몰래 캐낸 감자를 하나씩 건내기도 하였다. 먹어보면 동그랗고 예쁘게 생긴 감자알보다 울퉁불퉁한 감자가 더 달고 맛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씻지도 않고 인분이 섞인 흙 가운데서 캐낸 감자를 대충 입에 털어 넣다 보니 한국 와서 건강검진 할 때 회충이 많이 발견되었다.

일 중에도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될 경우 부식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감옥 생활 중에 그렇게라도 더 먹어보겠다고 나도 몇 번 자원해서 일을 나가기도 했다. 하루는 쟁기를 두 사람이 이고 지어서 밭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나는 부식을 먹기 위해 자원을 했다. 스무 명에서 일을 했는데 한 명은 어깨에 나무로 된 쟁기를 매고 다른 한 명은 쟁기의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밭을 갈았다. 쇠가 나무에서 종종 빠졌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죄수들이 알아서 나무와 쟁기날을 맞춰서 다시 끼워 넣곤 했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부식이라고 꿀꿀이죽이 고작이었는데 시라지를 죽처럼 끓여서 주는 것이 다였다. 그래도 그것 조금 더 먹겠다고 피곤을 감수하고 매일 그 무거운 쟁기를 매고 다녔다.

교화소에서 수박이라고 부르는 작물 호박도 가끔씩 주었던 부식 중의 하나였다. 초여름쯤 생호박이 나올 때 호박의 반의 반을 잘라서 나눠주었다. 나는 공구관리공으로 일을 했어서 한 조각을 추가로 더 얻어먹었다. 솔직히 밖에서라면 생으로 먹을 음식은 아니었지만 워낙 채소가 귀한지라 처음 조각은 사과처럼 와작와작 씹어 먹으면서 꿀처럼 달게 먹었다. 그렇지만 두번째 조각부터는 아무래도 생으로 먹기에는 거부하기는 했다.

가을에는 감자농사 뿐만 아니라 강냉이밭(옥수수밭)에도 수확을 도으러 갔다. 그 곳의 죄수들은 강냉이를 몰래 재빨리 먹는 법을 가르쳐준다. 입에 손을 대고 순식간에 갉아먹어야 하는데 다람쥐보다 더 빠른 것이 우리였다. 그렇지만 생 옥수수를 과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되서 토하기도 했다. 또 가을에는 초록색 완두콩을 콩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했는데 일을 잘하면 삶아서 으깬 감자에 완두콩을 뺏아서 주었다.

겨울에는 고추들이 빨갛게 익었다. 죄수들을 위한 작물이 아니고 간수들이 가져갈 품목이었다. 다 따고 남

아있는 별 볼일 없는 고추들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누렇게 되고, 나중에는 허영게도 되는데 죄수들은 대열을 맞추어서 다니다가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허영고 꺼먼 고추들을 따려고 혈안이 되었다. 어떤 조미료나 향신료도 없는 상황에서 그 상태 나쁜 고추라도 고급 식자재가 되었다.

배가 고픈 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거했던 빈대, 이,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이곳의 바퀴벌레는 어찌나 억센지 사람의 살점까지 뜯어먹었다. 뜯긴 곳이 가려워서 긁으면 피가 났다. 또한 이가 하도 많아서 옷을 들추면 이가 보였다. 출근 전에 대기 정렬을 하고 있을 때 “언니야, 여기 장난 아니다”하면서 서로의 이를 잡아주었다.

교화소에서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작업은 똥을 가득 실은 구루마를 끌고 얼음장 같은 냇물을 건너는 일이었다. 차가운 강물을 두 번 건너야 우리가 작업하는 감자밭이 나오는데, 그 감자밭까지 인분 가득한 구루마를 옮겨야 했다. 겨울에는 똥이 얼어있으므로 각자 커다란 천가방으로 운반했지만 봄에는 똥이 녹으므로 구루마로 한꺼번에 옮긴다.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열 명 남짓이서 1톤 가량 되는 무게의 구루마를 끄는데 돌바닥에 발이 계속 걸리고 구루마가 너무 무겁다 보니 발도 다치고 서로 고함 치며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옮겼다. 중간의 냇물도 통과해야 해서 몸이 훌쩍 젖었다. 오래된 죄수들은 저기 언덕 위에 앉아서 신입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낄낄대고 웃으면서 구경만 했다.

구루마를 옮기고 나면 부식이 주어졌다. 줄을 서서 부식을 받으면 동그랗게 앉아서 체면도 없이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배고픔 앞에 사회적 가면도 인격도 내려놓았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얼른 부식을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기존에 있었던 부대원들이 내 팔을 탁 치면서 “야, 재수 없어. 뒤로 가.” 라며 텃세를 부렸다. 순간 화가 나서 따지려고 했으나 감옥에서 나이보다는 누

가 먼저 들어왔냐가 중요했다. 신입들은 기존 죄수들 앞에 서면 안되었고, 고참 죄수들 눈 밖에 나면 생활이 피곤했다. 그래서 억울했지만 맨 뒤에 줄을 서서 부식을 받아먹었다. 비록 낱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막연하고 한심한 풀 죽이었으나 그 먹는 순간이 그렇게 행복했다. 한 숟갈 한 숟갈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죽이 비워지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다.

감옥에서는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다. 허약자들은 그나마 받는 음식도 사라지는 것이 아까워서 반 숟갈 반 숟갈씩 깨작 깨작 먹었다. 체력도 안 되는데 먹을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썼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는 이유로 똥을 만지고 밭에서 구른 흙투성이 옷을 그대로 입고 먹고 잤다. 그렇지만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떤 병에 걸릴지, 언제 기운을 잃을지 모르는 일이다. 나는 남편이 구해준 옷 덕분에 일하는 옷과 먹는 옷과 자는 옷을 따로 챙겨 입었다. 세벌 모두 절대적 기준으로는 깨끗함과 거리가 멀었지만 그렇게라도 청결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가끔씩 대열을 맞추면서 교화소 마당을 걷다 보면 쓰레기장 옆에 큰 거울이 깨져 있었는데 그걸 발견한 죄수들은 재빨리 자기 뒤통의 거울을 챙기기도 했다. 숟가락보다 작은 사이즈의 거울 조각이지만 자기 얼굴을 부분적으로라도 비추어보며 자기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다. 교화소에서 오랫동안 생존해온 장기수들은 그곳 생활에 적응한 상태에서 그런지 거울 조각들로 조금이나마 여유를 부렸다. 옷차림도 그나마 깨끗해 보였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눈이 무릎만큼 차올라 제대로 걷기도 힘든 날이었다. 교화소 근처 수림에는 아름다리나무가 많았고 죄수들은 지시에 따라 얼음판과 눈길을 헤쳐 수림까지 걸어갔다. 아름다리나무들은 어찌나 컸던지 몸통을 두 사람이 안으면 손 끝이 겨우 닿을 정도였다. 남자 죄수들이 그 큰 나무를 톱질하여 자르면 여자 죄수들은 다 자른 것을 산 밑까지 운반하는 것이 일이었다. 건조하고 수분기가 없는 겨울에 나무를 톱질하여 불을 때는 데에 쓰는 모양이었다. 여자 죄수들은 둘 씩 짝을

지어 내리막길에서는 그 껍질을 도끼로 벗겨서 매끄럽게 내려가도록 두고, 오르막길은 끈으로 이어서 끌고 올라갔다. 무거운 나무를 끌고 오르막을 오르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나무가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므로 아주 전속력으로 뛰어가지 않으면 다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평소처럼 내리막길에서 나무를 굴러 놓고 그 앞을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때 신었던 겨울 신이 하필이면 밑창이 다 헐어서 매끄러워져 있었고, 얼마 못 가 엉덩방아를 찌며 넘어지고 말았다. 그 때 내 뒤에서 굴러오던 통나무가 중간에 봉 뜨더니 주저 앉아있던 내 위로 다시 쿵 하고 떨어졌고, 나는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다. 같이 한 팀이었던 어린 여자 죄수가 깜짝 놀라 내 허리를 정신없이 주물렀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냈는지 순간 깜빡 통증에 의식을 잃기도 했다. 추운 설산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꿈쩍없이 죽겠다 싶어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걸어 내려왔다. 그 이후 보름은 꿈쩍없이 누워있었다. 떨어지는 아름다리나무를 온 몸으로 받은 격이니 몸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감방에는 겨울철이라 그런지 나 말고도 몇 명이 다쳐서 누워있거나 앉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다른 죄수가 자리를 잡았다. 이번에 새로 신입으로 들어온 루디아(가명)라는 죄수였다. 이 죄수가 담요를 뒤집어쓰고 그 안에서 부르르 부르르 떠는 것이 보였다. 나는 갑자기 큰 충격과 신비로운 감정에 빠졌다. 중국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나는 이 사람이 담요를 뒤집어쓰고 방언으로 기도중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험악한 감방 한가운데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와, 이런 감옥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네.’하고 깜짝 놀랐다. 그것이 나와 루디아 선생님과 첫 대면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알제리

Algeria



인구 : 43,333,000명

주요 종교 : 이슬람(98.2%), 기독교(0.3%)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129,000명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1: 24위, WWL2020: 17위

기독교박해 지수 : 70점

주 박해 요인 : 이슬람의 억압, 독재 정부의 억압, 가족의 억압

알제리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북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알제리의 종교적 박해의 주된 요인은 이슬람 사회, 급진적 이슬람 교사들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이다. 대부분의 알제리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박해, 특별히 가족과 친족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지도자를 포함한 가족과 공동체가 주요 박해 요인이 된다. 행정 조직의 각급 공무원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자유를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신앙의 삶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알제리에는 무슬림의 신앙을 흔들거나 무슬림을 다

른 종교로 개종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 비 무슬림의 예배 자체를 규제하는 법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또한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괴롭힘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친족과 이웃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이슬람 규범을 준수하고 의식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기독교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압박과 위협은 특히 지방 변두리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종교적으로 더 보수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들은 지난 1990년대의 정부와 충돌 당시, 이슬람 반란군의 거점 역할을 했었다.

역사/정치적 상황

북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알제

리는 과거 오스만제국에 속해 있던 나라였다. 그러나, 1830년, 알제리는 프랑스에 정복되었다가, 국민해방전선(FLN) 주도의 8년간의 해방전쟁 끝에, 1962년에 독립을 이루었다. 독립 이후, 국민해방전선(FLN)은 알제리의 정치를 장악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었다. 30년간 FLN은 유일한 합법적인 정당으로 알제리 정치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1991년 알제리는 다당제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선거 결과 이슬람 정당이 승리하자, 정부군은 선거를 취소시켰고, 알제리는 긴 내전에 들어가서 2002년에야 종식되었다. 내전으로 인해 1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내전을 승리한 이슬람 정당은 1999년부터 장기 집권을 이어오다 독재와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 등을 이유로 내세운 반대세력의 저항으로 사임하였고, 새로운 선거를 통해 강력한 군대와 동맹을 맺은 정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40퍼센트가 되지 않는 투표율과 여론의 불신임으로 반대파의 시위는 계속되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정부로 하여금 반대파의 시위를 종식시키는데 좋은 기회로 작용되었다. 반대파의 저항과 코로나19사태도 소수 기독교인들에 대한 알제리 정부의 탄압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 2006년 알제리정부가 통과시킨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종교 예배 금지법과 종교건물법으로 인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13개가 넘는 교회가 폐쇄되었고, 몇몇 기독교 공동체들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지정된 곳 외에서의 모임 자체가 금지되어, 종교건물이 아닌 가정에서 종교 모임을 갖는 것마저도 불법이 되었다.

2020년 세계 기독교 정보(WCD: World Christian Database)에 따르면, 알제리 국민의 98.2%는 수니파 무슬림이며, 시아파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알제리 헌법은 국가의 가치나 공동도덕에 반하는 활동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비 이슬람교도들이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알제리 기독교인 대부분은 이슬람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로서, 국가로부터의 법과 제도적 박해를 넘어,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적대감과 박해를 끊임없이 경험한다.

알제리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개인 영역** : 최근 일부 기독교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신앙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행위는 일부 급진적 무슬림들에 의해 신성모독과 폭력행위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이는 알제리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매우 위축되게 만들었다. 특별히 이제 막 개종한 기독교인들의 경우 위험이 더욱 크다. 더 넓은 범위의 친인척들의 탄압과 가족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이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것은 알제리에서 매우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알제리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 상징물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은 조심해야한다. 기독교 상징물을 노출하게 되면 무슬림 가족들로부터 자신들의 회심이 노출되고 추궁과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제리의 반신앙주의와 신성모독법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가족에게도 공개할 수 없을 만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법령 06-03에 의해, 비 무슬림의 예배 금지 조치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고, 개종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포교활동을 한 종교지도자에게는 3-5년형, 일반인에 경우는 1-3년형이 선고된다. 또한 알제리 사회는 대체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논의 자체만으로 괴롭힘이나 박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하라 이남지역의 이주민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무슬림에서 개종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소지하고 읽는 행위는 가족들로부터 억압과 사회로부터 박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휴대폰 성경 어플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알제리에서는 누군가를 개종시키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개종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누군가를 설득하고 개종을 유발하고자 하는 활동은 불법이다. 개종들에게 가장 심각한 박해는 가족들로부터 오는 박해이다. 여성들의 경우 가택 연금에 처해지기도 한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2019년, 카빌지역 한 교회가 경찰들에 의해 폐쇄되고 있는 모습

만나거나 접촉할 수도 없고,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도 없다. 서면을 통한 신앙 공유조차 허용되지 않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정폭력과 살해위협 속에서 살아간다.

• **가정 영역** : 알제리에서의 입양은 무슬림에게만 허용되고 기독교인은 입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슬람 교리에 기초한 종교 과목은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조금은 융통성이 있어서 기독교가정의 학생들에게 이슬람 종교과목을 면제해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교과과정 전체에 이슬람 교리가 스며들어 있어서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알제리 정부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자녀들 역시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역시 여전히 무슬림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 역시 무슬림으로 여긴다. 아주 드물게, 정부 관료에 따라, 자녀들의 기독교식 이름이 허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무슬림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이혼을 강요당하고,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권리마저도 빼앗긴다. 이것은 법조항은 아니지만, 대체로 법원과 정부 관료들이 인정하는 알제리 사회의 관행이다. 알제리 정부에게 있어서 모든 시민은 이슬람교도로 간주된다. 무슬림 인구가 주류인 한 마을에서는 기독교인 매장이 거부되기도 했다. 기독교인의 결혼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가능하기는 하나, 알제리 정부는 무슬림의 결혼만 인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정은 받을 수 없다.

• **공동체 영역** : 개인에 대한 감시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찰과 보안당국 요원들은 비 무슬림의 예배 및 기타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06-03을 엄격하게 시행한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활동들이 매우 활발하게 감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전화가 도청되고 이메일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건물 밖에서 모임을 갖을 때는 모든 활동들이 경찰에 신고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한다.

교육 제도적 차별은 사하라 이남지역 이주민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문제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일부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른 지역 기독교인들 역시 직면할 수 있는 종교에 따른 차별과 부당함이라는 점에서 알제리 기독교인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개종자들에게 실직과 같은 많은 부정적 문제를 야기한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취업을 할 때 자신들의 신앙을 숨기거나 차별을 감수해야 하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은 정부 고위직에 오를 수 없다.

• **국가 영역** : 알제리 헌법은 이슬람은 알제리의 국교이며 정부기관은 이슬람의 가치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개종시키는 것은 범죄이다. 법령 06-03은 교회공동체와 기독교인 개인 모두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태도는 일부지역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개종한 기독교인이나 사하라 이남지역의 이주민 기독교인들을 향한 차별은 분명히 존재한다. ‘



법령06-03에 따른 교회 폐쇄에 반대하는 시위 모습

무슬림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어떤 행위든지 법령 06-03에 따라 금지된다. 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은 이와 관련하여 스스로를 예민하게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으나, 가족들에 의해 박해와 학대를 당할 수 있다. 가족에 의한 학대 대부분은 대중에 노출되지 않으며 정부 관료들 또한 이 문제를 폭력이 아닌 가정의 문제로 간주한다.

• **교회 영역** : 알제리 정부는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있고 몇몇 기독교 모임은 2021년 월드워치리스트 보고 기간 동안 모임이 중단되기도 했다. 교회가 무슬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교회가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면 매우 심

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절대 혼자서는 교회에 갈 수 없고, 항상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야 한다.

법령 06-03에 따라 기독교적 내용을 담은 인쇄물 배포 및 제작은 포고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포와 인쇄는 물론 인쇄기를 소지하는 것까지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은 교회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법령에 따라 법을 집행한다. 외국인 기독교인들의 비자발급과 알제리 교회 방문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로 인해 방문이 매우 어렵다. 알제리 기독교인들이 해외를 나갈 때도 수많은 질문들에 답해야 하며,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방문하거나 해외집회에 참석하는 것 또한 방해를 받는다.

※ **긍정적 변화 예**: 정부에 의한 기독교 박해와 차별이



이슬람회당으로 바뀐 폐쇄된 교회 건물 입구 모습



알제리개신교협회(EPA) 안내 표지판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알제리 카빌 지역에서는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이 기독교식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기독교에 대한 차별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알제리 교회 역사

기독교가 알제리에 전해진 것은 2세기 무렵이다.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로마인들과 베르베르인(북아프리카 토착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교부 어거스틴이 지금의 알제리에서 태어났고, 그의 영향력은 당대를 넘어 지금의 교회에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강력했던 기독교의 영향력은 아랍의 침략(AD670-711) 이후, 이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슬람제국이 완전히 그 지역을 지배한 후에도 기독교의 신앙이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알제리 중부 지역 칼라(Qal'a)에서 발견된 1114년 기록을 보면, 당시에도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1509년에서 1792년 사이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스페인인이 알제리 오란(Oran)과 일부 해안지역을 지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830년에 프랑스가 알제리를 차지하고 1848년에 프랑스의 행정구역으로 만들면서, 10만명의 프랑스 시민들이 알제리에 정착하면서 알제리는 새로

워진 기독교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카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회를 곳곳에 세웠다. 이 모든 상황은 1962년 독립전쟁을 기점을 완전히 뒤집혔다. 그리고 무슬림들 사이에 이루어진 선교활동들은 대체로 성과가 없었다.

1980년, 토착민 지도자들이 주도한 복음운동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알제리 카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르베르인들(이마지헨인) 안에 존재한다. 이 공동체는 알제리개신교협회(EPA) 산하 조직으로 등록되어 있다. 긴 자유의 시간이 지난 후, 알제리 당국은 기독교인들의 자유로운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하라 이남지역 이주민 기독교인들 또한 자신들의 교회들을 시작하였고, 일부 알제리인들 또한 이들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었다.

알제리개신교협회(EPA)는 최근 알제리 정부에 의해 폐쇄된 가장 규모가 큰 티지오우주(Tizi Ouzou)와 마쿠다(Makouda)지역의 2개 교회를 포함한 13개 교회를 제외한 총 46개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다른 교회들을 또한 코로나사태로 임시 폐쇄된 후 아직 재 개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카톨릭 교회의 경우 알제리 내에 총 4개의 교구를 두고 있다.

알제리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1,300명(1.0%)
카톨릭	6,500명(5.0%)
개신교 기성교단	11,400명(8.8%)
독립교단	110,000명(85.3%)
무소속	150명(0.1%)
이중소속	0명(0.0%)
합계	129,350명(100.2%)
복음주의운동	55,000명(42.6)
사회개혁운동	40,000명(31.0)



알제리 개신교협회 무스타파 크림(Mustapha Krim 대표)

알제리의 라히드 목사님의 항소심과 폐쇄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알제리 오란 지역에서는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교회들을 폐쇄시켜 지금까지 총 16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2017년부터 알제리 오란 지역 정부는 교회 폐쇄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당국은 비이슬람 교도는 반드시 등록된 건물에서만 종교행사를 갖을 수 있다는 법령을 근거로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있다. 문제는 알제리 정부가 교회들의 종교 건물 등록 신청에 답변은 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라히드 세이그르 목사님이 담임하는 오란 시티 교회(L'Oratoire)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7월 폐쇄 명령을 받은 교회이다.

지난 2017년, 라히드 목사님이 운영하던 서점이 경찰의 긴급 압수 수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서적들과 출판물을 포함한 인쇄기가 발견되어 지난 2월에 “강제 개종 시도”죄로 기소되었다. “무슬림의 신앙을 동요시키는” 책들을 소지하고 인쇄했다는 것이 이

유였고, 지난 9월 항소심에서 DZD 200,000 (디나르: 약 170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재 항소를 준비 중에 있다.

알제리의 법령 06-03은 “무슬림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문서, 서적, 시청각자료 및 기타 수단을 생산하거나 저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알제리 오란시 전경〉



〈알제리 교회의 예배 모습〉



〈기도하는 알제리 성도의 모습〉



〈알제리 교회 지도자들의 훈련 모습〉

라히드 목사님과 알제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주님의 평안이 라히드 목사님과 함께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앞으로 있을 추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들이 벗겨지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강제폐쇄를 당한 교회들이 다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반 기독교 캠페인으로 탄압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박해 속에서도 알제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 해지도록 기도로서 함께해 주세요.



라틴 아메리카 아이티, 범죄조직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

마르셀로와 그의 가족은 예전에 자신들이 도움을 주었던 한 여성을 만나러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로 향하던 중 도로 위의 무장한 남성 무리들을 보았다. 일상적 방문 중에 벌어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무장한 남성들은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할 대형 트럭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마르셀로의 차를 슬쩍 쳐다보고는 뒷 쪽의 트럭을 향해 나아갔다. 운전석 뒤로 트럭 운전수가 무장한 남성들에 의해 끌려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트럭 운전수를 도로 변에 세워 두었고 무장한 남성들이 트럭 운전수를 납치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었다.

마르셀로는 브라질 출신 선교사로 지난 3년 동안 아이티에 거주하며 선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번도 강도를 만나서 피해를 본 적은 없다며 주님께 감사해 했다. 마르셀로는 오픈도어 라틴아메리카(ODILAB)와의 인터뷰에서 “그 남성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저희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긴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주셨어요”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늘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늘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아이티에서 이들과 같은 갱단이나 무장범죄세력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죠”라고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지는 아이티를 “세계 납치의 수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아이티 내 이러한 지역들처럼 갱단에 장악된 지역의 주민들은 납치되기 전에 구금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구금과 조사를

통해서 몸값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트럭운전사는 몸값을 받기 위한 “납치 타겟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장범죄조직의 폭력에 관대한 나라 아이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의 가장 가난한 나라인 아이티에서의 삶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다. 이 곳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갱단들의 잔인한 폭력 속에서도 안전하게 직업을 찾고 먹을 것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지역 비영리 단체 인권분석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아이티에서 628건 이상의 납치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작년 대비 3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평균적으로 하루 2건 이상의 납치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이다. 최근 17명의 미국인과 캐나다인 선교사들이 납치된 사건이 전세계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사실 아이티인들에게 납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다.

이들 폭력범죄조직들은 아이티 어디에서 존재하며 숫자가 상당한 수준이다. BBC 모니터링서비스에 따르면, 전국에 162개의 폭력조직들이 활 중이며, 폭력 조직원 수는 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더욱이, 폭력 사태로 2만명이 넘는 아이티인들이 거처를 떠나 피난민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티 선교 사역의 위험성

아이티에 거주하며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개발지원사역자들, 자선활동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마르셀로와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은 포스퀘어처치(Iglesia del Evangelio Cuadrangular)의 소속으로, 그들이 맡은 임무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식료품을 비롯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티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불안한 치안 문제이며 이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마르셀로 선교사는 말한다.

그는 또한 “매일매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의 주시해야 해요. 어디를 가기 전 먼저 범죄조직들의 동향을 뉴스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갱단조직이 우리가 갈 지역에 활동하고 있다면, 갈지 말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해요. 대체로 우리는 선교팀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는 피하는 결정을 해요.”라고 말했다.

마르셀로는 또한 지난 7월 조베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갱단들은 나라의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자신들이 경찰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주,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불과 300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한 경찰관이 대낮에 살해되었다. 마르셀로가 ODILAB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집 지근거리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최근에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로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아이티의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은 쉽게 갱단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마르셀로 선교사는 “보통 저희는 총을 소지하지 않고 갱단들 역시 이를 알고 더 쉽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에 더욱 취약해요. 갱단들은 저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다만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고 이를 위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리더들과 선교사들을 납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어요”라고 고백했다.

중앙아프리카(CAR), 끊임없는 혼란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교회들에게 2021년은 쉽지 않은 한 해였다. 중앙아프리카 서부지역에서 사역하는 오피도어 리더 도르카스 M(Dorcus M*)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폭력의 대상이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많은 박해들을 경험한다. 성도들은 거주지를 잃고 있고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무게를 교회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고백한다.

폭력의 세월만 거의 십년

셀레카 반군 동맹을 지배하는 무슬림들은 2012년부터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사회,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였고, 2013년, 구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다. 그 후 반군정부의 폭력 행위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UN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권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특히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과 대부분의 외곽지역들은 여전히 반군의 영향권 아래 놓이면서 인류의 재난이라고 할

만한 대학살이 벌어졌다.

2014년 셀레카 동맹이 해체되면서, 나누어진 단체들 사이에 영토전쟁이 일어났다. 이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편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단체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반-발라카 민병대(전통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됨)를 지배하는 무슬림들에 의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2020년부터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 셀레카 반군 연맹에 함께했던 단체들과 반-발라카 민병대들이 모여 변화를 위한 애국자연합: CPC(The Coalition of Patriots for Change)를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정권을 장악해갔다. 러시아와 르완다의 군사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권을 회복하는데 실패하고 CPC의 지배아래 일부지역의 폭력과 억압은 계속되었고 인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전국의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

CPC의 요충지로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밤바리 지역은 CPC 출현 후, 교회 활동이 큰 폭이 감소했다. 밤바리에 사는 아그네스 자매는 주일 아침 교회에 출석하는 길에 CPC 소속 남성 무리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당한 후에도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무장한 CPC요원들 때문에 병원 마저도 갈 수 없어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CPC는 자신들의 본부를 밤바리 지역 교회 근처로 옮기면서 일대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회를 떠나도록 억압을 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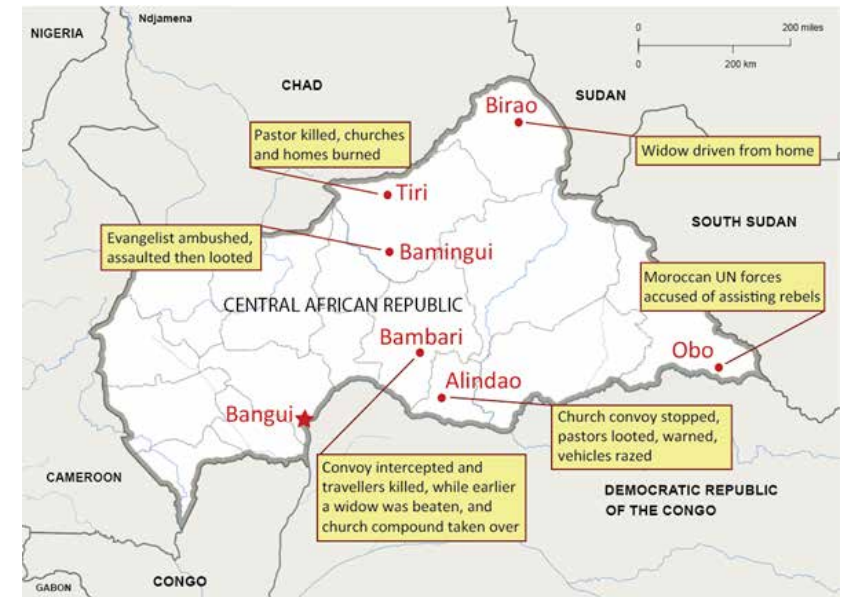
밤바리 지역의 한 기독교인은 “이 지역에서 무슬림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CPC가 본부를 옮긴 후, 교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며 안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또한 오피도어 현지 파트너는 일상과 같은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피도어를 통해 배운 박해에 대한 가르침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라며 어려움 속에서

도 저항정신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지난 10월, CPC의 또다른 애국자연맹단체 UPC로 추정되는 무장남성들이 벌인 차량 공격으로 최소 2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총 32명을 사살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은 테러에 대한 두려움으로 난민캠프 입성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불안정한 상황과 끊임없는 박해와 위협들도 이 곳 기독교인들의 복음전파에 대한 열정을 막진 못한다. 밤바리 지역 기독교인들은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경험하고 복음의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우고 있다.

티리 지역의 기독교 박해

지난 6월 15일, Front Populaire pour la Renaissance de la Centrafrique (FPRC)반군 단체의 대원들은 북동쪽 텔레(Ndele)에서 90킬로미터 떨어진 티리 마을에서 11명의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기독교인들의 가택 70채를 포함하여 티리협동교회와 사도교회를 불태웠다. 티리지역 기독교인 모두는 수년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단주의 무슬림들에게 낙인 찍혀 박해를 당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CPC에 의해 발생된 밤바리(Bambari) 지역 내 기독교박해사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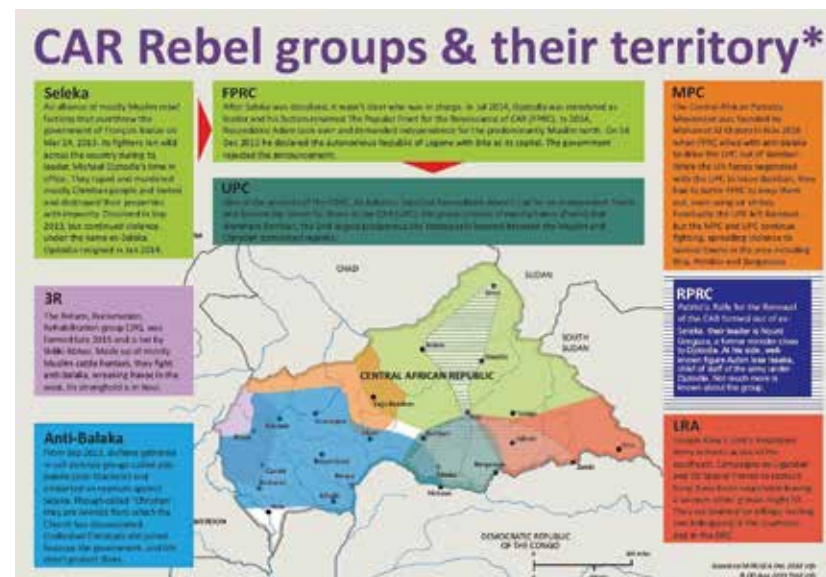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고 반군단체 대원들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이들 모두는 신실했던 티리협동교회와 사도교회 성도들이었다.

이 외에도 알린다오지역, 바밍기지역, 바리오지역 등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도제목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의 불안정한 정세가 기독교의 쇠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는 물론, 통행의 자유마저 지켜질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한 박해와 폭력이 조속히 끝나도록 기도해주세요.
- 반복되는 공격과 위협 당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가족을 잃은 교회와 가정 안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베네수엘라 교도소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5건의 범죄에 대해 누명을 쓰고 기소되어, 210일 동안 수감된 베네수엘라의 아르헨티나 출신 목회자 선교사의 간증 이야기이다. “저는 말씀전파를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음에 만족합니다” 마르셀로 코로넬 선교사의 고백이다.

마르셀로 코로넬 목사는 라틴아메리카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며 사역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출신 선교사이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삶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위해 베네수엘라 국민으로 국적을 변경할 정도로 베네수엘라를 향한 자신의 소명이 분명했던 마르셀로 선교사이다.

코로넬 목사는 “저희는 외국인이기때문에, 이 나라에 머물기 위해 많은 장애들을 극복해야 했고, 이 곳에서 저희 단체의 설립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베네수엘라의 ‘예배법’ 때문에 아내와 함께 거의 추방당할 뻔했는데, 이 법은 외국인은 절대 담임목사나 어떤 단체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 부부는 베네수엘라에 머물기 위해 베네수엘라 국적을 신청했고 2011년 4월 14일에 국적을 취득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국적을 취득하지마자 코로넬 목사는 목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선교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갑자기 단히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부당하게 고소당하다

2018년 10월 코로넬 목사는 담임하는 교회의 한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운전하다가 체포되어 집에 질린 자매의 기도 요청이었다. 코로넬 목사는 교통위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자매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 도착하자마자, 코로넬 목사는 자매의 범죄혐의가 마약 밀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한다. 이 자매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없는 약 상자들과 만료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약물들을 농장 내 가축에게 투여하기 위해서 병원으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에 있었다. 바로 이것이 그 자매가 체포된 이유이다. 코로넬 목사는 교도소에 도착하여 자매와 함께 기도하고 자매를 진정시켰다. 이 때, 자매는 코로넬 목사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진술해줄 것을 부탁했다. 코로넬 목사는 주저 없이 자매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어떤 방으로 끌려간 후, 아무런 말도 없이 하루 종일 그 방에서 대기해야 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코로넬 목사는 자신이 왜 그 곳에 있는지 깨달았다. 코로넬 목사는 5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어 구금되었다. 기소된 죄목은 국가반역죄, 테러, 국가재산 착취죄, 불법착취죄 범죄가담죄 5가지이다. 처음 4가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12~18년 형이,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4년 형이 선고될 예정이었다. 경찰이 주장한 코로넬 목사의 혐의의 근거는 이 자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이 교회 소유라고 말했고 이 자매가 처음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코로넬 목사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찰들은 어린 여성을 통해 마약을 밀수했다며 코로넬 목사를 비난했다.

꼭 짊어졌던 교도소생활

목사님의 집과 교회를 뒤져 마약의 흔적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넬 목사의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교도소 수감 생활은 작은 방에서 20명에서 33명이 함께 생활하는 인간 이하의 삶이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플라스틱 병들에 소변을 보고 감방에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간수들은 우리에게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을 사용하게 했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5분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식사는 안전을 이유로 식기류 없이 봉지에서 바로 꺼내 먹어야 했습니다. 방문은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5분간 허용되었고, 어떤 스킨십도 허용되지 않았고 그저 인사하고, 듣고, 종종 울기만 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기 위한 종이나 연필들이 거래되었습니다. 종이 1장에 10 아레파*, 연필이나 펜 한 개에 30 아레파인데, 아레파는 감옥 안에서 유통되는 동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듣기엔 그냥 좀 웃긴 이야기 같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저희들은 수감자법에 따라서 살아야했고 반드시 지켜야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간수들에 의해 폭행과 같은 심한 처벌을 받아야했습니다.”

교도소의 모든 곳이 목회지가 되다

코로넬목사는 그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죄수들 사이에서 서서히 자신감을 갖고 죄수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의 침대와 이불은 그의 휴식처가 되었으며, 침대에서 그는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조언을 했다.

코로넬 목사는 “매일 밤마다 죄수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기에 성경의 메시지가 더 잘 들렸습니다. 성경책은 없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과 일화들을 전하고 저의 감동을 나누었고,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알고 있는 찬송과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 친구가 교도소에 왔다가 안내소에서 설교하는 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제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라고 고백했다.

교도소 작은 방에서 시작된 사역은 훨씬 더 큰 규모로 성장하여, 다른 수감동과 심지어 여성 수감동까지 소문이 났다. 한번은, 여자 수감자가 꿈을 꾸고 해석을 부탁한 적이 있었고 코로넬 목사는 “당신은 곧 여기서 나가게 될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여성 수감자는 1년 넘게 석방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코로넬목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3일 후, 그녀는 정말로 석방되어 나갔던 일화도 있다. 이 일로 수많은 수감자들이 코로넬 목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210일간의 수감생활

체포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코로넬 목사는 아직도 석방 날짜가 없이 교도소에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결백을 알고 있고, 심지어 그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까지도 그가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사과했다. 수사관은 “목사님, 목사님의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목사님은 진정한 목사이시고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했다.

12월의 어느 밤, 아르헨티나에서 온 외교 사절단 대표들이 코로넬 목사를 찾아와 제안을 했다. 베네수엘라 국적을 포기한다면 지금 당장 아르헨티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코로넬 목사는 주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사절단에 18년을 감옥에서 보내야할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 계속 석방 절차를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코로넬 목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해 주실 것임을 확신했다. 이 결정은 결국 그를 교도소에 가두었지만, 코로넬 목사는 믿음을 굳게 지켰고 복음전파의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 그 후 몇 달 동안 코로넬 목사는 수감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기도했고 교도소 안에 세명의 목사를 세웠다. 매일 성경공부와 기도하며 아침을 보냈고 저녁에는 목사님들과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수감된 지 정확히 210일 만에 좋은 소식이 왔다. 드디어 혐의를 벗고 석방되게 된 것이다. 코로넬 목사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의 시간을 복음전파를 위해 활용하게 하셨다고 고백했다.

“저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음에 만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는 나빠 보이는 일조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MERRY CHRISTMAS

한 해 중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은 단연코 크리스마스다.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절은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박해받는 교회의 어린이들은 각자의 다양한 박해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성탄절을 기념한다. 박해받는 교회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성탄절 소식을 함께 들어보자.

베들레헴: 마리아(MARIA)와 소피(SOPHIE)

마리아(10살)와 소피(7살)는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다. 이들은 “여러분들 모두 이곳에 오셔서 예수탄생교회를 꼭 방문해 보셔야해요.”라며 베들레헴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전하였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베들레

헴에는 매우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 한 사회 속에서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삶이 분명하지만 이곳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두 민족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 속에 늘 고통과 함께 살간다. 그래서 마리아&소피는 “우리는 작년처럼, 올해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거예요.”라고 고백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크리스마스에 마리아&소피 가족은 가족끼리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다. 성탄절을 앞둔 두 자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더 열심히 기도할거예요”라고 고백했다.



마리아와 소피의 남동생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습



베들레헴의 예수탄생 교회 전경

이라크: 리디아(LYDIA)와 유시프(YOUSSIF)



리디아



유시프



쿠라코시마을, 어느 교회의 성탄 축하 모습

기독교 도시가 된 이라크 쿠라코시 마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IS(급진주의 이슬람무장단체)가 도시를 점령하고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마을 떠났고 남겨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납치 되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수

년이 지난 지금 쿠라코시 마을엔 교회가 생겼고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준비하는 성도들로 가득하다. 마을 전역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성탄 장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다. 모든 성도들은 크리스마스 준비로 기쁨의 시간을 보낸다.

이라크에 사는 리디아(11세)는 11월이되면 학교 기독교수업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다. 성경을 배우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성탄절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된다. 리디아의 오빠 유시프(12세)에게도 기독교수업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기독교수업을 통해 배운 복음과 성탄절에 대한 말씀은 박해를 당할 때마다 유시프에게 힘이 된다. 유시프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저희는 오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저는 주님을 믿어요 아멘.”



에티오피아의 하위

에티오피아: 하위(HAWI)

에티오피아의 하위(9세)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양초의 불을 살리려 무척 애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각자의 촛불을 교회에 가져가는 것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요. 각자 촛불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하위의 가족은 무슬림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 성탄 행사를 위해 더 모임에 참석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개종사실이 발각되면 집안은 물론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쫓겨난다.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로부터 박해와 폭행을 당하게된다. 그럼에도 하위 자매는 “어둠 속을 걷던 저희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예요, 예수님의 사랑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날을 축하해요”라고 고백한다.

이란: 알리아(ALYA)

“미안해요, 저는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축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지면 학교 관리자들에게 들 어갈 것이고 그들은 저를 처벌할 거예요.”

이란에서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범죄이다.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매우 비밀리에 기념한다. 알리아 가족들은 1월 알리아의 생일 때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예정이다. 주변에 의심을 사지 않고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한 이란 기독교인들만의 크리스마스 기념 방법이다. 집 외부는 물론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조차 장식할 수 없다. 알리아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지만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날을 위해 기도한다고 고백했다.



이란의 하즈랏 마소메흐 모스크



압마드



리안

시리아: 압마드(AHMAD)와 리안(LIAN)

시리아에 살고 있는 압마드(13세)와 리안(14세)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 10년이 넘도록 내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자신들을 만나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탄절을 기념한다.

리안과 압마드는 “저희는 할아버지 댁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달콤한 간식도 먹어요. 할아버지와 트리 장식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해요”라며 내전 속에서도 행복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시리아 내에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세력들에 의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늘 지속된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을을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가기도 한다. 무슬림이 많은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의 축하행사를 방해하는 무슬림들 방해가 극심해지기도 한다.



촛불을 들고 있는 라오스의 어린이들

라오스: 소옥(SOUK)과 텅(DENG)

라오스의 텅(12세)과 소옥(12세)은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양초에 불을 붙인다. 라오스의 교회는 정부 감시를 심하게 받는다. 박해와 폭행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지만 라오스의 여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면 박해와 폭행의 두려움은 잊어버린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날이고 예수님의 생일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켜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라고 텅과 소옥 어린이는 고백한다.

희망의선물 2021 캠페인

“함께”하기에 더욱 기쁨이 넘치는 케냐 기독교인들의 크리스마스



케냐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한 해 중 크리스마스를 가장 좋아한다. 마리아는 크리스마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요. 이 곳 케냐에는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 없어서 성탄절을 축하할 수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충분히 많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두는 각자 음식을 가지고 모여서 아무도 배고프지 않게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나누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케냐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함께”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날이기도 하다.

※ 이번 희망의 선물 캠페인은 크리스마스에 박해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기독교 교육 수업을 제공하는 성탄절 후원 캠페인으로 진행합니다.

[희망의선물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단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후원요청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올해는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기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1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달/훈련	선물 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 포함	6\$ (7,000₩ ~)
	선물 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선물 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 지원 (SED)	선물 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선물 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순교자 가족 포함	40\$ (50,000₩ ~)
	선물 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선물 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 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 파괴된 교회 지원	선물 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시리아 난민 포함	50\$ (60,000₩ ~)
	선물 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투옥자 포함	50\$ (60,000₩ ~)
	선물 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예배장소 지원	100\$ (120,000₩ ~)

※ 기존 정기후원자님의 후원은 2021년 선물번호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다중선택 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02-596-3171/010-7548-3171) 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